

# 지스트,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초청공연 개최

- 장애 인식 개선 위해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 단체 초청... 국악 공연 진행



▲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지스트 CT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초청해 학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정동 CT아트홀에서 11일 개최된 이 행사에는 지난 7일 새로 부임한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지스트 구성원 180여 명이 참여해 장애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며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공연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연주 단체다.

2011년 창단된 이 예술단은 조선시대 궁중 시각장애 예인(관현맹인)의 전통을 이어가는 단체로,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맹인악사에게 관직을 주고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이자 '온나라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현아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新)천년만세',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산책', '콜드 스프링(Cold Spring)', '범 내려온다', '산조 합주', '아름다운 나라' 등 다양한 작품이 연주됐다.



▲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마지막 곡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지스트 구성원들과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를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주는 가슴 뭉클한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스트 권익인권센터에서 추진한 이번 공연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